

‘희경루’ 중건업체 공사대금 놓고 ‘법정다툼’

광주시와 동맹제일누각 ‘희경루(喜慶樓)’를 중건한 업체가 수억원에 달하는 공사대금을 놓고 법정다툼을 벌이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A 건설사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소송의 첫 재판을 17일 연다. 이 재판의 원고 소가는 8억여원이다.

A사는 광주시가 전라도라는 이름이 명명된 지 1천년을 기념해 추진한 희경루 중건 사업의 공사를 맡았던 업체다.

약 60억원이 투입된 희경루 중건 공사는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됐고 광주시는 지난해 9월20일 중건식을 통해 사업 마무리를 지역민에게 알렸다.

그러나 중건식 이후 2개월가량이 지난 11월께 광주시에 A사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장이 전달됐다.

재판부는 해당 재판 시작 전 올해 7월 조정에 나섰으나 최종 불성립했다. 이에 따라 소송 제기 1년여 만에 첫 재판이

A 건설, 광주시상대 8억원상당 소송 제기...오늘 첫 재판

“내역서 누락된 자재 비용 선지출” vs “공문 등 근거 없어”

열릴 예정이다.

재판에 앞서 A사는 원고소가 중 7억 원에 대해 “설계도면에는 있으나 내역서에 누락된 공사 자재에 대해 먼저 지출한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누락 자재에 대해선 “2층 마루에 들어

가야 할 목재”라며 “시공 전 설계도면 검토 단계에서 파악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광주시에 자재 누락을 얘기했다니 “일단 공사를 진행하라”고 해 자비로 비용을 선결제했으나 공사가 끝날 때까지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원고

의 입장이다.

나머지 원고소가는 “준공이 예상 기일보다 늦어 패널티 성격으로 적게 받은 공사 대금”이라며 “설계 변경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공사 범위가 커진 것에 비해 기일은 별로 늘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부과된 패널티는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A사의 주장에 대해 광주시는 “아직 정식 재판이 시작되지 않은 만큼 공식 입장을 내놓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설계도면과 내역서 간 자재 차이는 흔한 일”이라며 A사의 ‘누락 자재 선지출’에 대해서는 “정황일 뿐 공문 등 관련 사실을 뒷받침 할 증거 기록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순수 공사비가 40억원 정도였던 걸 감안하면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상당히 큰데, 소송 제기 전 단 한 번이라도 지급을 요청한 적이 없다”며 “소송에서 사실관계 자체를 다룰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재영 기자

전남대병원 ‘조기’ 계양 尹탄핵 조의(?) 설왕설래

병원 “바람 불어 내려간 것...의도 없다” 해명

전남대학교병원에 걸려있는 국기가 16일 조기 계양돼 이를 본 이들 사이에서 다양한 추측성 말들이 오갔다.

이날 오후 2시40분께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1동 국기 계양대에 태극기와 병원기가 나란히 계양돼 있었다.

다만 태극기와 병원기가 현충일 등 국가적 조의를 표할 때 다는 조기(弔旗)여서 그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조기는 평상시와 국경일에 국기를 깎아 맞춰서 다는 것과 달리 한쪽 정도 내려서 다는 방식이라 차이가 확연하다.

때문에 이를 목격한 시민들은 전남대병원의 조기 계양 배경에 대해 궁금증을 나타냈다.

진료차 병원을 찾았다는 이모(50대) 씨는 “우연히 병원 위쪽을 봤는데 국기가 조기 계양돼 있어 순간 잘못 봤나 싶었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조의(?)를 표한 것이라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다소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모씨와 함께 온 딸(20대)도 “지난 주 3-4일간 추위 속에서도 5·18민주광장에서 ‘윤 정권 탄핵’을 외쳤고, 14일 탄핵이 가결돼 국민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는데, 국립병원이라서 국가 수장의 탄핵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든다”며 “단순 실수이길 바라고, 실수가 맞다면 태극기 계양에 좀 더 신경을 썼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전남대병원은 “바람이 불어 내려간 것일뿐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해당 태극기와 병원기는 본보 취재가 시작된 지 1시간이 채 못된 시간에 깎다 끝까지 올린 방식으로 재계양됐다. /인재영 기자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 관계자들이 16일 오후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245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인용과 내란 책임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헌법재판소, 내란 세력尹·책임자 처벌해야”

지역 시민사회·오월단체, 엄정 수사 촉구...오는 21일 ‘총궐기대회’

광주·전남 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오월 단체·기관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과 내란 책임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이하 광주비상행동)은 16일 오후 전일빌딩245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 국민이 승리했지만, 이는 불완전한 승리에 불과하다”며 “내란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윤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수사·파면을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비상행동은 이날 ▲내란 책임자 처벌 ▲탄핵을 거부한 국민의힘 해체

▲공론장을 통한 ‘사회대개혁’ 등 행동 계획을 주장했으며, 오는 21일 오후 4시 5·18민주광장에서 ‘광주시민 총궐기대회’를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대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광주비상행동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쫓아 내란 사태 종식을 위한 국회 탄핵을 거부한 국민의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불법 내란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사회대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론장을 만들고 논의를 이어가며 국민의 명령이 정치에 반드시 실현되도록 투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오월 단체·기관도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했다.

5·18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헌재 재판관들은 윤석열 내란 수괴 권력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의 뜻과 헌법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결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자신이 임명한 재판관들을 믿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체 도리어 큰소리치고 있어 ‘헌재와 내란 수괴가 소통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며 “헌재는 오직 국민과 헌법에 충성해야 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다.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을 조속히 파면해 실추된 국가의 명예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주성학 기자

“오월정신 헌법전문 수록 총력”

시, 5·18 정신계승위원회 출범

광주시가 ‘12·3 계엄·내란 사태’를 계기로 ‘가치행정’을 펼친다.

광주시는 16일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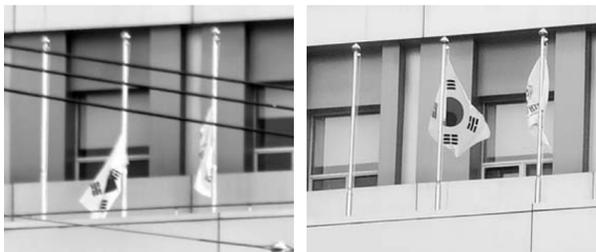
이를 위해 강기정 광주시장을 위원장으로, 박상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목사)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30명 규모의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위원회’를 구성, 공식 출범했다. 정신계승위원회는 5·18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5·18정신 등 헌법전문 수록, 5·18기념법 제정과 함께 왜곡·편향에 맞선 정의로운 역사 바로 세우기, 제8차 5·18민주화운동 보상 추진, 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추진, 제15회 세계인권도시포럼 추진 등 5·18 관련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시는 지난 1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8차 5·18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를 개회, 학사징계, 해직 언론인 등 ‘5·18민주화운동 8차 보상금 신청자’ 69명에게 보상금 8억2천4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 중 광주·전남지역 외에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관련자도 46건(연행구금 18건, 학사징계 20건, 해직 8건)이 결정돼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강기정 시장은 “시민들의 용기에 광주시는 가치행정으로 응답하겠다”며 “인간의 존엄과 나눔과 상생, 포용의 가치에 걸맞은 행정으로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고 오월정신을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



16일 오후 2시40분께 전남대병원 1동 위쪽의 국기 계양대에 태극기와 병원기가 조기 계양(좌)돼 있다. 본보 취재가 시작된 이후 태극기와 병원기가 깎다 끝까지 올린 방식으로 재계양됐다. /김애리 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Tape to USB/DVD
영상변환서비스

SONY

USB DVD
영/상/변/환/서/비/스

고객님이 소장하고 계신 TAPES를 가져오시면
USB/DVD로 만들어 드립니다.

- 1 화질 손실 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 2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3 보관 장소가 좁아집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캠코더·카메라
중고 제품
최고가 매입!
최저가 판매!

DVD 변환전문업체 스마트폰, 태블릿, TV, PC 모두를 위한 Type A, C 듀얼 USB

소니서비스센터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